

## 사회

## ■ 6월 모의 평가 변환 표준점수

◇ 인문계

연어	2012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과목 석차 배분(%)	2013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연어	수리나	외국어	탐구	계
	수리나	외국어	탐구		연어	수리나	외국어	탐구	계			
137.0	138.0	130.0	67.9	540.8	100	134	144	140	73.9	565.8		
130.2	133.8	128.4	66.0	524.4	95	127	138	134	67.8	534.6		
126.3	129.8	126.2	64.0	510.3	90	123	130	129	64.7	511.5		
122.0	126.2	123.1	62.3	495.9	85	121	124	124	62.0	493.0		
119.1	121.8	121.2	60.3	482.7	80	118	119	120	59.5	476.1		
116.3	118.4	117.8	58.5	469.4	75	115	114	116	57.3	459.5		
113.6	113.6	115.3	56.8	456.1	70	113	110	112	55.1	445.2		
111.0	109.7	112.0	54.6	442.0	65	110	105	108	53.5	430.1		
108.4	106.0	109.2	53.1	429.8	60	108	101	105	51.7	417.5		

◇ 자연계

연어	2012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과목 석차 배분(%)	2013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연어	수리나	외국어	탐구	계
	수리나	외국어	탐구		연어	수리나	외국어		계			
137.0	139.0	130.0	70.1	546.3	100	134	139	140	74.1	561.3		
130.2	129.8	128.4	66.8	521.9	95	127	134	134	68.4	531.8		
126.3	125.2	126.2	63.9	505.5	90	123	130	129	65.5	513.0		
122.0	122.3	123.1	62.3	491.9	85	121	126	124	62.4	495.8		
119.1	118.7	121.2	60.4	479.8	80	118	122	120	59.8	479.5		
116.3	116.4	117.8	58.6	467.8	75	115	118	116	57.3	463.5		
113.6	113.1	115.3	56.8	455.5	70	113	116	112	55.0	451.0		
111.0	110.4	112.0	54.5	442.4	65	110	113	108	53.0	437.0		
108.4	109.0	109.2	52.6	431.9	60	108	111	105	51.1	426.3		

## ■ SKY大 주요학과 지원 가능 표준점수

대학	학과(6월 모평점수)											
	연어	수리나	외국어	탐구	계	연어	수리나	외국어	탐구	계		
서울대	경영대학(562.1), 사회과학계열(556.1),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556), 인문계열(554), 인류·지리학과(552), 교육학(551), 사회교육계열(551), 외국어교육계열(551), 국어교육과(550), 의예(560), 화학생물공학부(555), 생명과학부(551.5), 자유전공학부(547), 경영대학(545), 기계공학공학부(544), 컴퓨터공학부(543), 물리천문학부(542), 전기공학부(542), 건축·건축전공(542), 수의예(539.5), 농생명공학계열(539), 과학교육계열(537.5), 식품영양(537.5), 간호대학(531.5), 과학교육(531.5)	137.0	139.0	130.0	70.1	546.3	100	134	139	140	74.1	561.3
고려대	경영대학(557.5), 경영대학(555), 미디어학부(554.5), 자유전공(553.3), 국제학부(548.5), 영어교육과(547), 국제언어학부(546.7), 국어교육과(546.5), 인문학부(546.5), 의예(546), 화학생물공학부(545.5), 생활과학계열학부(539.5), 청기전자전파공학부(537.5), 신소재공학부(537), 이과대학(535.5), 기계공학부(533.5), 건축학과(532), 컴퓨터교육과(531.5), 생체의공학과(530.5), 정보통신대학(528.5), 간호대학(527.5), 치기공학과(527), 병사선학과(526), 보건과학부(523)	130.2	129.8	128.4	66.8	521.9	95	127	134	134	68.4	531.8
연세대	경영대학(562.1), 경제학부(560), 언론홍보영상학부(556.2), 정치외교학과(554.5), 자유전공(554.5), 행정대학(554.5), 영어영문학과(553.3), 국어국문학과(548.5), 사회학과(547), 교육학부(546.8), 의류환경학과(546), 철학과(546), 의예(559), 치의예과(558), 청기공학과(547.5), 생명공학과(542.5), 수학과(539), 전기전자공학부(539), 신소재공학부(537.5), 기계공학부(537.5), 건축공(537.5), 컴퓨터정보공학부(537.5), 물리학과(537.5), 지구시스템공학과(535.5), 천문우주학과(531.5), 간호대학과(528.5), 생활디자인학과(528.5)	126.3	125.2	126.2	63.9	505.5	90	123	130	129	65.5	513.0

(자료 : 나눔 일시설립 연구회)



'사랑의 안경나누기' 28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다비치안경은 이날 대상자들에게 안경 20개와 돋보기 30개를 지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대 의예과 550점·광주교대 504점

## 서울대 의예과 560점·경영학과 562점

## 6월 모의평가 내 표준점수로 어느 대학 갈 수 있나

지난 7일 치러진 6월 수능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하려면 560점~562점, 자연계는 531점~560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점쳐졌다. 연세대 경영학과는 562점, 의예과는 559점, 치의예과는 558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의과대학은 557.5점, 경영대학은 557.5점, 정경대학 555점, 자유전공 553.3점, 미디어학부 554.5점, 영어교육과 547점이면 지원 가능하다.

이는 광주지역 진학·진로교사 등

으로 구성된 '나눔임시 컨설팅연구회'

(회장 한철민·승덕고)가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6월 수

능 모의고사 첨삭 결과를 분석한 것

이다.

이번 모의수능에서 1등급 수험생

의 표준점수가 2012학년도 실제 수능

표준점수보다 25점 올라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시험이

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인문계열에 지원하려면 549점~562점, 자연계는 531점~560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점쳐졌다. 연세대 경영학과는 562점, 의예과는 559점, 치의예과는 558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의과대학은 557.5점, 경영대학은 557.5점, 정경대학 555점, 자유전공 553.3점, 미디어학부 554.5점, 영어교육과 547점이면 지원 가능하다.

이는 광주지역 진학·진로교사 등

으로 구성된 '나눔임시 컨설팅연구회'

(회장 한철민·승덕고)가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6월 수

능 모의고사 첨삭 결과를 분석한 것

이다.

이번 모의수능에서 1등급 수험생

의 표준점수가 2012학년도 실제 수능

표준점수보다 25점 올라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시험이

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각 대학들이 공개한

2012학년도 학과별 커트라인에서 합격자 85%선의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점수를 추정한 것이다.

한철민 나눔임시 컨설팅연구회장은 "이번 분석은 실제 대학들이 선발 전형에서 적용하는 표준점수를 적용해 지원 가능 점수를 산출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만큼 지도교사와 상의해 대학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표준점수 = 수능 영역별로 응시 생 집단과 과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나이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학생 간의 상대적 서열이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 표준점수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한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서 심사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출마감과 함께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확정하면서 심사 이전에 업체와 심사 위원들과 사전접촉 여지를 넘겼다는 것이 일부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영송 동구 문화예술과는 "선정된 심사위원이 각각의 주관대로 점수 차이를 준 것에 대해 규제할 권한이나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n@

## 광주 예술의 거리 '간판정비' 입찰 논란